

금남로에서

호남의 변신, 민주당, 그리고 ...



신항락 이사·논설주간

서울 노원병 보결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국회 입성 여부가 오늘 결정되지만 ‘정치인 안철수’의 진화과정을 지켜보면 자못 흥미롭다. 그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주변의 출마 권유를 뿌리치고, 곧바로 대선 무대에 지향했다. 그러나 여론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아마추어적 처신과 한계로 뜻을 접어야 했다.

안철수 등장 ‘부실정치’ 산물

이후 82일간의 미국 체류에서 숙성시킨 그의 담금질은 전혀 예상치 못한 보선 출마로 나타난다. 그것도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 불과 며칠 후 서울 노원병을 찍어서 출마를 선언한 건 타이밍과 승부욕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변신을 읽어내기에 충분했다.

은펜칼럼



이병우 광주대 자율 융복합전공학부 교수

한비자는 신하를 다루는 세 가지 책략을 제시했다. 즉, 독단독탑(獨斷獨獲), 심장불노(心藏不露), 참참고찰(參參考察)이다. 독단독탑은 임금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신하에게는 단지 간언만 허락할 뿐 어떠한 권한도 나누어주지 않은 것을 말한다. 심장불노는 임금이 자기의 견해나 회로애락의 감정을 감춰서 남들로 하여금 도무지 자기의 생각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며,

기고



지영애 광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우리가 소비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가축이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가공장에서 등심, 안심 등과 같은 부위별로 분할·정형되어 정육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살아있는 가축이 고기로 바뀌는 첫 단계는 바로 도축과정이며 유통되는 식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관리점이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부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통해 식육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도축을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노인 대신 ‘어르신’으로 바꿔 부름시다

세대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시대적인 상황에서 ‘노인’이라는 용어를 ‘어르신’으로 바꾸어 사용하면 어떨까요? 노인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심이 있어야 하는데 노인과 어르신이라는 말의 느낌 차이는 노인은 늙은 사람이고 어르신은 존경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나이 드신분들은 과거 역경과 고통을 이겨내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주역들이다. 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낸 이들에게 사회적 공경심과 존경받는 명량한 분위기를 만들어 반드시 보답해야한다. 그래서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인(老人)은 한자로서 사적인 의미가 나이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한다. 어르신이라고 부르나 늙은이, 고평자, 사니어, 실버 등

간 사과이자 40%대의 지지율 추락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호남사람들에게 50여일은 1년보다 길게 느껴지는 아픔이었다. 호남 인사 출대는 상실감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호남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감언을 기대했던 게 오히려 구차하고, 또다시 ‘호남 소외론’이 회자되는 게 지켜를 뿐이다.

새정치와 혁신, 미완의 과제

그렇다고 민주당에 기대를 건다는 건 소가 웃을 일이다. 대선 패배 후 4개월이 흘렀지만 민주당 내 친노·주류와 비주류 간의 대치는 더욱 가열되고 있으며, 대선의 화두로 떠올랐던 ‘새정치’와 혁신은 미완의 과제가 된지 오래다. 겨우 내놓은 게 대선결과보고서라지만 패배 책임 여부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5·4 전당대회 역시 계파싸움으로 전락한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다.

호남이 ‘덧발’이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권보다 더한 인사 차별을 해도 성명서 한 장 내지 않았던 것 또한 민주당이다. 지금도 호남이 박탈감에 헤매고 있지만 그에 부흥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찾기 어렵다. 최근 여론기관의 조사 결과,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34.4%로 민주당 24.1%에 비해 크게 앞선다는 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안 전 교수가 국회 진출과 세력화를 통해 민주당과 비교 우위에서 차기 대선에 당선 이 유력시되는 주자로 우뚝 선다면 호남사람들의 힘은 더 실릴 게 분명하다. 호남민들은 정치적 고비 때마다 항상 바른 선택을 해왔지 않은가.

이제, 안철수의 변신은 호남의 변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언제까지 민주당의 변신을 유예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안 전 교수에 대한 의도적 지지는 정치 선진화의 시너지 효과를 키울 것이다. 역대 정치의 동선(動線)으로 보아 호남민심 변화는 총선권, 수도권을 넘어 서울로 향하게끔 돼 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안 전 교수의 재부상은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독단에 경종이 될 것이며, 그 스스로 새정치를 일구어 간다면 반사적으로 국민적 관심을 되돌리는 건 불문가지다.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도 여기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가 정치인으로서 갈 길은 멀고 험난하다. 그 전제는 우일신(又日新)이 돼야만 한다. 그를 통해 호남과 국민에게 감동을 자아내고, 민주당을 변화시켜야 한다. 설부른 민주당 입당론이나 신당 창당론은 경계해야 한다. 그 건 그 다음의 일일 뿐이다.

오늘 밤 ‘정치인 안철수’로 거듭난다면 내일부터 ‘상실감’의 호남사람들에게 기대감을 더 커질 게 자명하다.

/hshin@kwangju.co.kr

신하를 다루는 세가지 책략

참참고찰은 신하들의 과거와 현재, 성격의 특징과 심리상태들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봉건 왕조시대에 임금과 신하는 대립관계여서 신하가 강하면 임금이 약했고 임금이 강했고 신하가 약했다. 자칫하면 신하에게 당한 임금이 부지기수였다. 한비자는 이러한 시대에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본질을 분석하고, 군주의 권력유지 방도를 제시하여 제왕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자 진, 한비자의 글을 보고 “이 책을 지은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죽여도 한이 없겠다”고 감탄했다고 한다.

한비자의 심장불노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전략적 모호성’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리더가 모호한 태도를 취할 때 효과를 보는 수도 있다. 특히 대립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유용한 방책이다. 현대 국제 정치 무대에서 양자택일의 선택이 요구하는 상황에서

유용한 전략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협조관계에서 모호성은 부작용이 더 크다. 모호성으로서는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리더십의 핵심요소 는 비전을 제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를 공유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 미래한국리포트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소통’은 가장 절실한 과제이며, 소통부재로 우리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연간 사회적 갈등 비용은 국민소득의 27%, 연간 3백조 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통비용이 300조원이라니 놀라운 수치이다.

리더십을 골프 코스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린 위에 깃발이 있고, 누가 봐도 저기가 목표라지만 살 수 있도록 할 때가 있다. 조직 구성원에게 물었을 때 그 깃발의 위치가 다르게 판단되면 혼란을 겪게 된다. 리더의 역할은 깃발을 확실히 세우는 것과 경계를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다. 그 이외에 세세한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다. 즉, 어떠한 클럽을 사용하여 어떠한 타법을 구사할 것인가는 경기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소통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모호성의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에 유행하는 풍자는 그냥 웃을 수만은 없게 만들고 있다. “아무도 모르는 세 가지가 있다. 박근혜의 창조경제, 안철수의 새 정치, 김정은의 생각이야.”

창조경제뿐만 아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많다. 한비자의 세 가지 책략이 더 이상 어른거리지 않길 기대한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社說

국회의원들 지역 현안예산 반드시 쟁겨야

박근혜 정부가 출범 후 첫 편성한 17조3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광주·전남의 신규 현안사업이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라는 점에서 인사가 이어 또 다른 출대가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광주시는 정부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 등 10건에 1368억 원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전남도도 목포~보성간 철도 고속화 및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등 5개 사업 1900억 원을 건의했으나 모두 미반영됐다고 한다.

이번 추경은 세입결손 총당분 12조 원을 뺀면 실제 사업 대상은 5조3000억 원에 불과하지만 광주·전남이 건의한 현안사업을 모두 제외할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사업 모두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성장동력인데다 추경 반영 여부에 따라

새 정부의 우선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커 예산 확보는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광주·전남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당내 계파 간 갈등 속에 당 지도부를 뽑는 5·4 전당대회에 집중하느라 지역현안 쟁거기엔 뒷전이라고 하니 한심한 노릇이다. 영남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현안사업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광주·전남은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호남 인사 출대 등을 볼 때 지역 공약 이행도 불투명해 이번 국비 확보에서 밀리면 향후 5년간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위기감이 지배해 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이 처한 당면한 현실을 직시해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아 한다. 이 지역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을 동원하는 것도 필요하며, 여의치 않을 땐 투쟁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대형마트 등쌀에 죽음택한 골목상권

광주지역 골목상권 영세상인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대형마트와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확장에 버티기도 힘든데, 이번에는 규제의 틈새를 비집고 지역기업의 프랜차이즈 마트를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역기업이 운영하는 중형마트는 4월 현재 영암마트 55곳, 텃밭 32곳을 비롯해 120여 곳에 이른다. 또 일반가게에 비해 규모가 2~3배나 되는 DC마트, 하나로마트 등 중·소형마트는 1400여 곳에 달한다. 이들 중형마트들은 대형마트 기준인 총 면적 3300㎡에는 못 미치지만 비교적 큰 규모로 분사 차원에서 유통을 관리한다.

이 중형마트들이 문제가 된 것은 지난 해 초 개정된 유통법에 있다. 골목상권 주변에 SSM과 대형마트 신규 입점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제 등이 시행되면서 반사이익을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런 제한 없이 입점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광주시 북구에서 소규모 마트를 운영한 A(52)씨가 경영난과 이로 인한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을 죽음으로 내몬 셈이다.

중소 상인단체 등이 나서 ‘일정 규모 이상, 다수 가맹점을 둔 마트 역시 중대기업으로 인정해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을 입법부에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대기업과 중형마트들에 상생을 호소하지만 계산으로 바뀐다는 격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규제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당장 규제의 틈새를 메우지 못하면 골목상권은 고사된다. 정부는 대형마트 기준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 외에 긴급지원형태의 회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도 조례 개정 등 골목상권을 보호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오딘(Odin)이 최고의 신으로 등장하는 북유럽 신화에는 세계수(世界樹)라고 불리는 위그드라실(Yggdrasil)이 나온다. 오딘이 심었다는 이 거대한 불푸레나나무는 우주를 꿰뚫고 서 있으며, 세계의 뿌리는 신들의 세계인 아스가르드와 인간계인 미드가르드, 그리고 지하계인 니플하임으로 뻗어있다.

무성한 잔가지는 아스가르드를 뒤덮고 있으며, 특히 미드가르드로 뻗은 뿌리 밑에는 오딘이 마시고 지혜를 얻었다는 유명한 ‘미미르의 우물’이 숨겨져 있다. ‘나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개념은 고대부터 전세계에 퍼져 있었다. 힌두교 3대 경전의 하나인 우파니

못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카발라(Kabbalah)’에서는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신(神)을 생명나무(세피로트-Sefirot)의 형태로 묘사하고 있다.

나무는 지하에 뿌리를 뻗치고 하늘엔 가지를 뻗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민족과 국가에서 나무를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세계축(軸)’으로 여기고 있다. 나무가 우주를 나타내는 보편적인 상징

지구의 정원



산드에서는 우주를 ‘하늘에 뿌리를 박고 온 땅 위에 가지를 드리운, 거꾸로 선 무화과나무’라고 설명하고 있다. 페르시아 신화에서도 모든 존재의 원천인 ‘태초의 바다’에 생명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유대교 신비주의로, 모세가 후세에 전한 신의 계시 가운데 문자로 전하지

으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도 환웅이 3000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정상에 있는 신단수(神壇樹) 아래에 내려 신시를 열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2013 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가 지난 18일 개막식 갖고 오는 10월20일까지 184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정원박람회가 ‘지구의 정원(Garden of the Earth)’이란 주제에 걸맞은 우회 한 민족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전세계에 내보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홍행기 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제1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체국 2200-661 (F A X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신ington·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